

터키의 마블링 예술, 에브루

물감과 물을 가지고 추는 섬세한 춤. 터키식 마블링 '에브루'는 정교한 기술과 속도에 작금의 다양한 시도가 더해져 예술의 지평을 확장하는 중이다.

Water Colors

The Turkish marbling art of *ebru* is a delicate dance between paint and water, requiring both speed and skill from the artist. Today, a mix of tradition and innovation is helping to keep this centuries-old art alive.





만날 수는 없다고 했어요.” 벤슨은 학자의 길을 택하기 전까지 제본업자이자 인쇄업자로 일했다.

오늘날 터키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에브루를 즐기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미술 학교, 지역 문화 센터, 개인 화실에서 성인, 어린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에브루 수업이 진행된다. “에브루는 우리 문화의 일부예요. 터키 사람은 누구나 에브루를 알고 있죠.”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대학 강사인 멜리케 타쉬츠오올루의 말이다. 유리 공예가 쾰린 알겔도 “터키인은 어린 시절부터 에브루 문양을 보고 자란다”고 말한다.

에브루의 전통 문양은 한때 수도승의 거처로 쓰였던 ‘갈라타 메블레위하네시 박물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터키 에브루에 대해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과거 수피교도들은 수도원에서 마블링 기술과 그와 관련된 서예, 제본 기술 등을 연마했다. 박물관에는 무스타파 뒤즈퀸만이라는 에브루 예술가의 작품이

에브루 예술가인 바하르 코자바쉬가 수강생을 가르치고 있다(왼쪽 페이지). ‘키트레’는 물을 걸쭉하게 만들어 염료가 수면에 동등 뜨도록 한다(아래).

Artist Bahar Kocabaş instructs a student in *ebru*, the traditional Turkish art of paper marbling (opposite). Gum tragacanth thickens water, allowing paint to float on the surface (below).

very old, and I couldn’t meet him,” says Benson.

While the predominant narrative about *ebru* in Turkey is of a revered art meticulously pass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over the centuries, Benson believes the true history is much more dynamic — and exciting. “There’s a lot of hyperbole about this being a really ancient art, but there’s evidence to show that marbling became quite popular quite rapidly,” he says.

Benson’s research suggests that marbling as we know it can be credited to a Persian artist living in India near the end of the 16th century. “Mîr Muhammad Tâhir took marbling to a whole new level. He figured out how to float and manipulate not just organic colorants, but amazingly brilliant shades of color, including mineral pigments,” says Benson. Letters from artists working in the library of a shrine in Iran show that they were familiar with — and much impressed by — Muhammad Tâhir’s craftsmanship. Since the shrine’s ceremonial guardian, the local provincial governor, also once served as ambassador to

“손은 기계처럼 움직이되 일정하고 기분 좋은 리듬을 타야 합니다. 너무 강하거나 약한 힘으로 물감을 떨어뜨려서는 안 되죠. 극도의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이지만, 물감이 퍼질 때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바하르 코자바쉬의 말이다. 코자바쉬는 터키어로 마블링을 뜻하는 ‘에브루’ 기능 보유자이자 교육자다. 에브루는 큰 그릇에 담긴 액체에 물감을 떨어뜨려 문양을 만들고 그 위에 종이를 덮어 전사(轉寫)함으로써 화려한 무늬를 연출하는 터키의 전통 예술이다. 물감으로는 황소의 담즙, 식물 고무, 금속 산화물의 혼합물이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에브루는 지난 2014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 덕분에 터키에서 다시금 인기몰이를 하고 있지만 미국인 학자 제이크 벤슨에 따르면 그가 학생이던 1980년대 말, 에브루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시나브로 잊힌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었다고 전한다. 에브루의 역사는 16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벤슨이 이스탄불의 전통 시장 그랜드 바자르의 먼지 자욱한 구석에서 우연찮게 마블링 문양이 새겨진 종이를 발견했을 때가 바로 1980년대다. “종이를 펼던 남자는 무척 조심스러워했어요. 그는 그것이 비밀스럽고 신비한 예술이라 했죠. 또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은 나이가 무척 많고 제가 그 사람을

“Your hand must be like a machine, with a nice, steady rhythm — not dropping the paint with too much or too little force,” says Bahar Kocabaş. “You have to be patient, but when the colors open up, it’s beautiful.” Kocabaş is both a practitioner and teacher of the art of paper marbling, known in Turkish as *ebru*. The process, which traditionally involves an alchemic mix of ox gall, plant gum and metal oxides, consists of manipulating paint as it floats on top of a water bath, then transferring the resulting pattern to paper before it dissolves away.

Inscribed on UNESCO’s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n 2014, *ebru* is enjoying a surge of popularity in Turkey. It dates back to at least the 1600s, but when American academic Jake Benson first came across marbled papers in a dusty corner of Istanbul’s Grand Bazaar as a young student in the late 1980s, the art was largely forgotten and shrouded in an aura of mystery. “The man selling the papers was very cagey, saying that it was a secret, mystical art, and the master who made them was





에브루 예술가 쿠빌라이 에랄프 디첸르의 이스탄불 작업실 풍경
Ebru artist Kubilay Eralp Dincer reviews a student's work at his studio in Istanbul's Kadiköy district.

전시돼 있다. 뒤즈퀸만은 에브루의 오랜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 이로 1990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수많은 제자를 배출했다. '현대 에브루 예술가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인 셈이다. 박물관에는 뒤즈퀸만이 사용한 도구도 전시돼 있다. 말 꼬리털과 장미의 줄기로 만든 붓, 물감이 튼 각종 막대, 작은 주걱, 금속 쟁반, 그리고 머리빗 빗살처럼 못이 촘촘히 박힌 긴 나무 빗 등이다. 그가 사용하던 도구들은 오늘날 에브루 예술가들이 사용하는 도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에브루 예술가는 보통 자신이 사용할 물감을 직접 만든다. 물감은 금속 산화물 기반의 염료로 만든 가루에 냄새가 코를 찌르는 황소의 담즙과 물을 섞어 사용한다. 황소의 담즙은 물감이 퍼져 나가되 다른 색과 섞이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특정 작품의 색깔을 다른 시기에 그대로 재현하기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작품에는 그것을 제작한 물리적 공간의 이런저런 특징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때의 기온이나 습도 같은 것들 말이에요." 알귄의 설명이다.

물감이 완성되면 이 물감을 붓에 찍어 한 번에 한 색깔씩 물이 담긴 직사각형 쟁반 위에 뿌린다. 쟁반에 담긴 물은 '키트레'로 처리되어 있는데, 키트레는 식물의 수액에서 채취한 점성을 띠는 물질로 물을 걸쭉하게 만들어 염료가 물 위에 떠 있게끔 한다. 또, 물 표면의 물감이 종이에 잘 정착되도록 돕는 역할도 한다.

에브루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재료에는 각각의 성격과 의지가 들어 있다고 한다. "물감과 키트레는 반드시 좋은 친구여야 해요. 그 둘이 늘 잘 지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코자비쉬의 말이다. 재료 준비하는 데만 몇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하지만 일단 작업을 시작하면 망설임 없이 빠르고 부드럽게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만 다양한 물감이 그리는 형태가 무너지기 전에 종이에 전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물감을 찍어낸 종이는 건조대에 올려놓고 말리는 과정을 거친다.

흩뿌린 물감이 자연스럽게 퍼져 나가도록 두면 세포를 닮은 문양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돌'이라는 의미의 '바탈' 에브루라고 한다. 이런 스타일은 오스만 제국 시절에 제작된 초기 에브루 작품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막대나 바늘, 못이 박힌 빗을 뜻하는 '타라크'로 물감을 다듬으면, 'V' 모양이 겹겹이 포개진 '켈기트' 에브루와 소용돌이 모양의 '벨벨 유와스' 에브루 등의 무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배경 무늬 위에 섬세한 꽃을 그려 솜씨를 뽐내는 것이 지난 100여 년 동안 유행했다. '꽃'을 의미하는 '치체클리' 모티프는 터키의 에브루 중 가장 유명하다. 당시 유행에 변화를 꾀한 이가 뒤즈퀸만이다. 뒤즈퀸만은 흔히 그리던 튜립, 카네이션, 장미 외에 테이지를 그려 넣었다. 그의 작품은 갈라타 메블레위하네시 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the Ottoman Empire, it seems likely that this connection was how the techniques came to Turkey.

From there, marbling spread far and fast, finding its way into European travelers' albums and account books, and even onto early American paper currency. "Less than 200 years after Muhammad Tâhir pioneered the technique, there's mass production of marbled papers in Europe, and Benjamin Franklin is putting it on money as an anti-counterfeiting device," Benson says.

Today, *ebru* is practiced by thousands in Turkey, taught in fine-arts schools, community centers and ateliers to adults, children and tourists alike. "*Ebru* is part of our culture. Everyone in Turkey knows about it," says Melike Taşçıoğlu, a graphic designer and university lecturer. Glassblowing artist Gülin Algül agrees: "From childhood on, people in Turkey can recognize the patterns of *ebru*."

Many of these classic patterns are on display in an exhibit of the work of *ebru* master Mustafa Düzgünman at Istanbul's Galata Mevlevihanesi Museum, a former dervish lodge. According to Turkish lore, Sufis practiced *ebru* at such lodges. Düzgünman, who died in 1990, is seen as a kind of bridge between that older tradition and the art's contemporary practitioners. His tools, which sit in a display case, are typical of those found in workshops to this day: horsehair-and-rose-twig brushes, a small spatula, a metal tray and a *tarak*, a long block of wood with nails driven into it like the teeth of a comb.

Ebru artists typically prepare their own paints, mixing a powder made from metal-oxide-based pigments with water and ox gall, a wetting agent that encourages the colors to spread but also keeps them from blending with each other. "The exact colors of a particular *ebru* work are hard to ever replicate at any other moment in time," says Algül. "They capture part of the physical area where the piece was made — its temperature and the climate there."

Once the pigments are created, brushes are used to sprinkle these paints, one color at a time, into a rectangular tray containing water treated with *kitre* (gum tragacanth), which thickens the liquid enough so that the pigments will float on top, allowing them to then adhere to a piece of paper placed gently on the surface. The idea

일부 예술가들은 표현의 경직성에 반기를 들기도 한다. “저는 어떤 예술 기법이 특정 이미지와 제한적으로 결부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유희라고 하면 온갖 형태의 그림이 다 떠오르지만, 에브루 하면 그저 카네이션 이미지만 떠올리잖아요.” 타쉬츠오을루의 말이다. 그녀는 ‘아쿠아스피어스’ 시리즈를 통해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자 애쓴다. 이를 위해 자신만의 에브루 기법으로 완성한 단순한 도형을 모눈종이, 지도, 격자무늬 종이 위에 전사했다. 그렇게 완성된 더없이 단순하면서 현대적인 이미지는 펜 다이어그램이나 검체 슬라이드와 닮았다.

넬덤 쇤메즈는 인정받는 에브루 예술가로 터키 에게해 연안의 이즈미르에서 주로 활동한다. 그는 전통을 지키는 일과 예술 형식의 지평을 넓혀가는 태도가 서로 상충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단순한 형태의 꽃을 줄줄이 그려 넣은 일명 ‘하티프’ 문양은 오늘날 구식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이슬람교 성직자에 의해 처음 개발된 때로 추정하는 1700년대 당시에는 ‘아주 현대적인 모티프’였다는 것이다.

쇤메즈는 주로 자연에서 받은 영감에 정교한 이미지를 접목하는 에브루 작품을 만든다. 그가 독일에서 생활하던 때 겪은 ‘신비한’ 경험을 들려주었다. “물감이 액체 위에 떨어져 서서히

that *eburu* materials have a personality, and perhaps even a will, of their own isn't an uncommon one among people who love the art. “Your paint and your *kitre* must be good friends; they don't all work together well,” says Kocabaş.

Though the preparations of materials can take hours, once started, an *eburu* design must be made quickly and smoothly, without hesitation, so the colors don't lose their form before being transferred to the paper, which is then pulled away from the bath and placed on a drying rack.

The cellular-like patterns created when the sprinkled paints are simply allowed to spread out on their own is called *battal* (stone) *eburu*, the style seen in most early examples of the art. Tools such as the *tarak* are used to further manipulate the paint to create patterns, including

에브루는 주로 종이에 전사하지만 문양은 양초(아래)나 공책(오른쪽 페이지) 등을 장식할 때도 쓰인다. 전통적으로 제본에 광범위하게 응용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Though *eburu* is most often applied to sheets of paper, its patterns can also decorate products like candles (below) and notebooks (opposite), the latter an echo of the art's traditional use in bookbinding.



번지는데, 그때 액체 표면에 붉은빛 사막을 걸어가듯 나타가 보이는 거예요. 낙타와 사막 이미지가 나타난 이유는, 추위에 익숙하지 않은 제가 유럽의 겨울을 따뜻하게 나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더군요. 터키를 몇 번 다녀온 후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물고기와 문어, 불가사리 등 수중 생물을 포함한 이스탄불의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쇤메즈는 외국으로 이주하고 그 나라의 언어를 제대로 구사할 줄 몰랐던 시절,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에브루에 빠졌다고 한다. 그는 에브루 역사 연구자답게 이즈미르에 ‘에게 대학교 종이·책 예술 박물관’을 설립하기도 했다.

쇤메즈는 새로운 풍경을 작품에 담아내기 위해 전통 기법을 응용한다고 말한다. 일례로 물감 위에 빗을 다른 각도로 움직여 폭풍이 몰아치는 흐린 하늘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V’ 모양의 겔기트 문양과 물결 모양의 ‘샬’ 문양을 결합해 바다의 움직임을 표현하기도 한다. “과거의 거장들은 새로운 문양을 개발하거나 에브루 작품에 자신만의 해석을 가미함으로써 다층적 의미를 띤 풍요로운 예술 세계를 창조했어요. 우리가 지금 현대적이라 말하는 요소도 내일은 전통이 되어 있겠죠. 현대적 요소가 반복되면 전통이 되는 거니까요.” 쇤메즈의 말이다.

the nested “V”s of *gelgit* (tidal) *eburu* and the swirls of *bülbül yuvası* (nightingale's nest) *eburu*. For the last century or so, it has also been popular for *eburu* masters in Turkey to show off their skills by adding delicate painted flowers on top of these background patterns. Düzgünman is credited with the “innovation” of adding the daisy to the existing canon of tulips, carnations and roses.


Though these *çiçekli* (floral) motifs have become the most widely recognized form of *eburu*, some artists are challenging the stylistic rigidity they represent. “I don't like the idea that an art technique is associated with a single image,” says Taşçıoğlu. “When you think of an oil painting, all kinds of pictures come to mind, but with *eburu*, there's this idea that you just get an image of a carnation.” She set out to help change this perception with her series *Aquaspheres*, in which she transferred simple shapes created with the *eburu* technique onto graph paper, maps and grids. The resulting spare, contemporary images are reminiscent of Venn diagrams or specimen slides.

에브루의 진화 터키 에브루 예술은 수백 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쳐 비밀스럽게 전승된 신성한 예술이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벤슨은 에브루 예술에는 그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흥미진진한 역사가 깃들여 있다고 말한다. “에브루가 유서 깊은 예술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사실 이 마블링 예술은 아주 순식간에 대중적인 예술이 되었다는 근거가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거죠.”

물 위에 잉크나 종이를 떨어뜨리는 형태의 예술은 에브루 이전에도 존재했다. 수면에 먹물을 떨어뜨리고 종이나 천을 대어서 무늬 그대로 염색하는 일본의 ‘스미나가시 기법’의 기원은 9세기경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벤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블링 기법은 16세기 말 인도에 살던 페르시아인 예술가에 의해 시작되었다.

“미르 무함마드 타히르는 마블링 예술을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어요. 그는 유기 안료뿐 아니라 놀랍도록 선명하고 다양한 색상의 무기 안료를 액체 위에 뿌려 다듬는 방법을 터득했죠. 아주 가느다란 선을 이용해 수면 전체에 빗살 문양을 고르게 그려 넣는 방법도 개발했죠.” 이란의 한 사원에서 일하던 예술가들이 남긴 편지도 미르 무함마드 타히르의 숨씨에 경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원의 의식 담당관이자 지방 총독이었던 인물이 한때 특사 자격으로 오스만 제국을 방문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아마도 그를 통해 이 기술이 터키로 전파되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이후 마블링 예술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고, 유럽인 여행자의 앨범과 회계 장부를 장식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초기 지폐까지 활용되었다. “미르 무함마드 타히르가 마블링 예술을 개척한 지 200년도 지나지 않아 유럽에서는 마블링 기법을 활용한 작품이 대량 생산되었고, 벤저민 프랭클린은 위조 방지 목적으로 화폐 제작에 이 기술을 적용했어요.” 벤슨의 말이다. 오늘날 에브루 기법은 직물, 도자기, 양탄자 등의 디자인 작업에 두루 쓰인다. 터키 디자이너 네드레트 타지로올루는 ‘뉴욕 쿠티르 패션 위크’에서 마블링 기법을 활용한 고급 의류를 선보이기도 했다.

유리 공예가 알귈도 그녀만의 방식으로 에브루 예술을 활용한다. 그녀는 달군 유리에 착색 안료를 떨어뜨려 문양을 만든다. “섭씨 650도의 유리를 다루는 혹독한 작업 환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에브루의 전통 기법을 따르려고 해요.” 에게해 연안 도시 보드룸에서 활동하는 에브루 예술가 부르한 에르산은 터키 마블링 예술의 매력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에브루 작업을 할 때면 정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해요. 하지만 매번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물은 마치 미지의 세계와 조우하는 듯하지요.”  글 제니퍼 해텀 사진 존 레퍼드

EBRU'S EVOLUTION Nedim Sönmez, an *ebru* master in İzmir, doesn't see any conflict between upholding tradition and pushing boundaries. He notes that the now old-fashioned rows of rudimentary flowers known as *hatip* (preacher's) *ebru*, after the imam believed to have created them in the 1700s, “was a modern motif in its time.”

Sönmez has made his mark on the art form by incorporating elaborate pictorial scenes into his works. He says that while he was living in Germany, when his paint hit the marbling liquid and began to spread, “I started seeing camels walking through crimson desert landscapes on the surface of the liquid. I think the imagery must have come to me as a way to keep warm while living through the cold European winters that I wasn't accustomed to. Upon returning from my visits to Turkey, I started working on Istanbul scenes that reflected my homesickness.”

Sönmez uses old techniques in new ways to make his innovative landscapes, for example moving a comb at angles through the paint to create the sense of a stormy sky, or combining *gelgit* with a wavy *şal* (shawl) pattern to depict the motion of the sea. “The old masters enriched this art by creating different patterns and bringing their own personal interpretations to the foreground,” he says. “What we describe as modern today will be traditional tomorrow; one is the continuation of the other.”

Today, the methods used to create *ebru's* patterns are being applied to fabric arts, ceramics, carpets and even a high-end line of clothing by the Turkish designer Nedret Taciroğlu. Glass artist Algül does her daring take on *ebru* by manipulating drops of colored pigments she has placed on molten glass and then blowing the glass into sculptural shapes. “I try to stay loyal to traditional *ebru* techniques, as much as I can while working at 650C,” she says.

Burhan Ersan, an *ebru* artist in Bodrum, works in a bold contemporary style that he says is influenced by the art of painters Jackson Pollock and Wassily Kandinsky, as well as by Zen Buddhist philosophy. “You have to concentrate great attention while working on *ebru*, because there's no turning back once you've begun,” he says. “But the result each time is like a new encounter with the unknown.”

 By Jennifer Hattam Photographs by John Wreford



에브루 기법을 접목한
꺾린 알귈의 유리 공예 작품
Artist Gülin Algül incorporates *ebru*
marbling into her blown glass pieces.